

9. 30

이기택협회장 청와대 방문

이기택 협회장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FDI 서울총회 개최식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회장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비서관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번 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치과계의 국제적 위상과 FDI 내에서의 지위가 향상되는 등 총회 결과가 매우 고무적임을 강조했다.

10. 11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연석회의

지난 10월 11일 부산지부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의 공보이사들은 홍보의 중요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 영향이 엄청난 만큼 치협이 홍보도 이제는 색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보이사들은 각 의료단체 가운데 유독 치협만 홍보 담당 직원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홍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함은 물론 치과계를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배정과 인원배치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0월 11일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수 보험이사는 복지부에서 치주치료를 원하는 회원에 한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율 지도 지표를 적용치 않고 마음껏 치주치료를 하도록 했다며 각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회원들이 이 조치에 참여토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케일링 의보수가가 50%올라 거의 관행수가에 근접해 있으니만큼 많은 회원이 동참하여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10. 14

유니세프 기금전달

이기택 협회장은 지난 10월 14일 치협 회장실에서 FDI 서울총회 기간 중에 개최된 골프대회와 달리기대회에서 모금된 국제아동기금 후원금 1백32만6천4백원과 23달러를 유니세프 한국지부(회장 현승종)에 전달했다.

이날 치협을 방문한 이배근 조정관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재 12만명의 후원자 중 6백여명의 치과의사들이 후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치과의사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제6회 정기이사회

이기택 협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문제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현치과계의 주요 현안이라 지적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은 확정됐으며 1과 3계 체계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지부장회의, 협회장 장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덴탈올림픽 로고 공식 사용, 치과의사 인력 장기수급계획연구용역의 건 등에 대해 토의했다.